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음 10월 21일) 제21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수능 끝난 수험생들의 '신나는 응원전'



도내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배 고교 연합 체육대회가 27일 전주시 전주비전대학교 종합운동장 및 문화체육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수험생들이 밝은 모습으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 수소산업 집중 육성한다

내년부터 연료전지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등 9개 사업 지원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 사업 위한 선행 절차 추진키로

전북도는 27일 수소상용차 부품 중심의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연료전지신뢰성평가 기반구축 등 9개 사업, 3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이 수소 상용차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도내 수소 관련 부품기업의 애로기술지원 및 상용화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수소상용차 중심의 수소기술지원센터(가칭)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래 수소산업을 전라북도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소상용차 중심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실무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추진한다.

내년도 현대차 양산시기에 맞춰 전북 1호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해 도와 완주군이 협력하여 국비 15억원 확보해 추진 중이다.

환경부 사전협의와 국회 환노위 증액반영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국회예결위 심의 중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환경부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수요조사(2019. 2~3월)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수소차 및 충전소 수요조사 추진 예정이다.

시군 및 관계기관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 이행 후 내년 1월중순까지 2020년분 사업 물량 조기 확정 후 국가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수소산업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소차 충전소 보급사업과 같은 시장지원 사업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 수요중심

의 R&D와 기업지원 사업 등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도내 수소관련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하여 2019년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로 내년 도내 수소상용차 수출지원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국비 반영이 어려울 경우 내년에 완주군과 같이 지방비를 우선 투입해서라도 충전소 1기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메일 INDEX	
4면	-최규성 소환 조사 초읽기
6면	-검찰 '심바 의혹' 수사 길게 본다

청각·언어장애인 도서관 문턱 낮추나

전주시, 내년 3월 평화도서관 농아인 특화로 운영키로 도서관내 수어통역사 배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도움

전주시가 청각·언어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평화도서관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장애인의 편의와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주시립 평화도서관을 농아인 특화도서관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관련기사4면〉

평화도서관에는 그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용을 꺼려했던 청각·언어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어통역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수어통역사는 책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일률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법률과 취업 등 다양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출장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는 이들이 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아인을 위한 책임어주기 △수어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장애인과 대화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3월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하며, 도내 대학 수어동아리와의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내년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타 도서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기존 청각·언어장애인들 상당수가 도서관 내 수어통역사가 없는 관계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도서관을 이용하기 꺼려해 왔다"며, "특화도서관 시범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과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폐원 추진' 전국 사립유치원 85곳

전북서 1곳 늘어 10곳... 교육부, 폐원 해당지역 공립 확충키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원 신청을 하는 사립유치원 수가 85곳으로 늘었다.

이는 평년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70곳에서 15곳이 늘어난 수치다. 전북에서도 1곳이 늘어 모두 10곳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현황(26일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 사이 서울 4곳, 경기와 전남 각 3곳이 폐원 의사를 밝혔다. 또한 부산과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에서 각 1곳씩 폐원 의사를 학부모에게 타진한 것으로 새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13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6곳 △전북 10곳 △전남 3곳 △경북 2곳

등이다.

서울은 23곳에서 27곳으로 4곳으로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곳은 폐원 후 높이 확원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사립유치원 1곳이 지난 19일 교육청의 폐원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반면 폐원 신청 공문을 접수한 유치원 3곳 중 한 곳은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교육부는 앞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 그 인원만큼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은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